

http://dx.doi.org/10.17703/JCCT.2018.4.3.171

JCCT 2018-8-21

## 한국 속신의 형성과정에 대한 기호학적 고찰

### A Semiotic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of Korean Folk-Belief

김경섭\*, 김은주\*\*

Kyung-Seop Kim\*, Eun-Joo Kim\*\*

**요약**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많은 현상들과 대면하며 살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인간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엄청난 경험의 축적과 사고의 발달을 근거로 수많은 해석을 낳았다. 인간의 인식이 자연 현상에 대해 적절한 해답을 내릴 수 없을 때 의존하는 것은 경험의 축적에 의한 심리·문화적 해석이었다. 이런 단계에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해석의 하나가 바로 속신일 수 있다. 특정 현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론이 단문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 속신인 것이다. 이를 기호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의 또는 몇몇의 기호나 조건이 하나 또는 몇몇의 결과를 드러낸다고 믿는 전통적인 표현’이라 하겠다. 속신은 세계에 대한 해석 행위로서 ‘민속적인 해석학’인 것이다.

속신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본고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속신이 형성되는 과정을 기호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속신을 하나의 ‘해석소’로 파악한다. 이것은 퍼스의 기호이론에 의한 것이다. 그는 기호가 기호를 낳는 끊임없는 기호작용을 ‘기호-대상-해석소’간의 삼항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퍼스의 기호작용 개념은 속신의 형성과 더불어 그 특징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속신을 하나의 해석소로서 간주할 때, 퍼스 기호학에서 해석소가 지니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속신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퍼스의 기호학에서는 자연 현상이나 사건, 행동 등의 범주가 기호학의 범위내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런 점이 속신을 기호학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주요어** : 속신, 기호학, 퍼스, 해석소, 무한 기호작용

**Abstract** Man is confronted with a lot of unknowable phenomena in his life. With the passage of time, man has interpreted the world by the accumulation of experience and development of thought. In the early days of the civilization when all the phenomena was not explained in a scientific way, man was dependent of the psycho-cultural interpretation by the accumulation of experience. Folk-Belief is one of the psycho-cultural interpretation about the nature. If Folk-Belief is paraphrased in a semiotic way, it is as follows : ‘the traditional expression which believes that one or several sign and condition show one or several effects.’ In this respect, Folk-Belief is the interpretation about the nature, man and society, as it were, the world. Folk-Belief is folkloristic semiotics.

This article intends to clarify the process of Folk-Belief formation process. To investigate the Folk-Belief formation process, this article regards Folk-Belief as an interpretant which is the term from the semiotic theory of C. S. Peirce. Peirce explains the incessant semiosis that sign brings forth sign through the trichotomy relation among sign - object - interpretant. Folk-Belief is explained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terpretant of Peirce when we regard Folk-Belief as an interpretant. By Peirce, Folk-Belief is ‘something which believes that human mind represents something about some phenomena’ The category of ‘some phenomena’ is included in a range of semiotics, we can look into Folk-Belief in a semiotic way.

**Key words** :Folk-Belief, Semiotics, C. S. Peirce, Interpretant, Unlimited-Semiosis

\*중신회원, 을지대학교 교양학부 (주저자)

\*\*정회원, 을지대학교 교양학부 (교신저자)

접수일: 2018년 6월 20일, 수정완료일: 2018년 7월 23일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8일

Received: June 20, 2018 / Revised: July 23, 2018

Accepted: August 8, 2018

\*\*Corresponding Author: kej70@eulji.ac.kr

Faculty of Liberal Arts, Eulji University, Korea

## I. 서론

속신(俗信 Folk-Belief)은 미신(迷信 Superstition)인가? 말을 바꾸어 다음과 같이 반문해 보자.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 혹은 “불장난 하면 자다가 오줌싼다” 혹은 “아침에 까치가 울면 귀한 손님이 온다”는 말에 자신이 얼마나 구속되어 있는가, 혹은 이런 식의 강박에서 자신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것 말이다.

여기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속신을 모두 언급할 수 없지만, 세련된 교리와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기성 종교의 신자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속신의 주술적 속박(呪縛)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속신은 무시할 수 있을 듯하면서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민간의 믿음이자 민속적 담화의 한 양상이다.

그러므로 이런 구술 표현들을 속설 내지는 미신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인간 문화 발달의 초기에는 자연 현상이나, 천재지변의 징후가 과학적으로 해명될 수 없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 근거가 아직 통용되고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의 인식이 자연현상에 대해 적절한 해답을 내릴 수 없을 때 의존하는 것은 경험의 축적에 의한 심리·문화적psycho-cultural 해석이었다.

이런 단계에서 자연에 대한 인간 해석의 하나가 바로 속신(俗信 Folk-Belief)일 수 있다. 속신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도 인간이 최초로 생활을 영위한 순간과 일치할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외적 세계, 사물 및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의미 해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문화가 원시 상태에 가까울수록 자연의 징후들은 하나의 기호로서 그것의 올바른 해석이 절대적으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기호 해석 능력은 그것을 심리적이고도 경험적으로 판단하는 데 그치고 만다. 그 결과, 인간들의 인식론이 단문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 속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속신은 자연현상, 자연 사물 또는 인간 및 사회의 어떤 징표를 기호로 삼아 그것을 의미화하는 작용에서 비롯된다. 자연과 인간 및 사회에 대한, 말하자면 세계에 대한 해석 행위가 다름 아닌 속신이다. 따라서 속신은 민속적인 해석학이다.[1]

속신을 고대의 신앙이나 주술이 종교에 이르지 못하고 민간에 퇴화하여 잔존한 것으로만 판단하는 입장은 잘못된 것이다. 종교의 허부적 요소가 민간에 탈락하여

속신이 되었다고 한다면, 종교라 할 만 한 것을 가져보지 못한 민족에게는 속신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사실 그런 민족에게서 더 많은 속신을 찾아볼 수 있으며, 더구나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속신은 여전히 생겨난다. 결국 속신은 종교의 진화론적 발달사에서 파악되는 잔존물이 아니라, 커다란 신념체계 내에서 종교나 주술, 혹은 신앙과 동일한 위계에서 파악되는 인간 신념의 한 양상인 것이다.

우리는 말의 힘의 울타리 속에서 자라나게 되고 일생을 통해서 그 울타리의 보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말을 통해서 사회화되고 언중과 만나게 된다.[2] 인간이 태어나서 타인과 또는 자연과 대응하면서 삶을 살아 나갈 때, 말의 힘에 의해 구속을 받게 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속신인 것이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20세기 후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속신은 독자적인 구조와 의미를 지닌 구술 전승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 구술 전승의 기본단위이며, 민족의 원초적인 세계관과 인식론을 담고 있다. 그만큼 속신은 인간의 사물에 대한 인식과 경험들이 가장 짧은 형태로 축약된 문학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II. 속신 연구의 의의

대부분의 속신은 강한 점복성(占卜性)과 예언성(豫言性)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매우 관습적이고 정형적이다. 한 집단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꼭 같이 해석하게 된다. 그것은 속신이 지닌 전통성에서 유래한다. 속신은 전통성이라는 권위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을 강박관념 속으로 몰고 간다.

여기서 합리나 불합리를 따지는 것과, 그것의 객관적 정당성 여부는 의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속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속신에 대한 반성(反省)이나 내성(反省)의 여지를 부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무턱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강박관념을 형성하고 강박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이런 면에서 속신의 믿음을 전통성과 짝지은 강박성(強迫性)과 관련시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속신에 대한 의미화의 작업은 심층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상징화(象徵化)’와 매우 맞닿아 있다. 가령 정신분열증 환자가 겹쳐진 신발을 보고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따위가 전형적인 상징화이다. 이 해석에

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보편성도 없다. 해석이 자의적(恣意的)인 것이다. 이런 자의적 해석 행위가 쌓여 단일 집단의 공동 해석으로 성장하게 되면 관례화된 ‘집단적 상징화’의 면모를 보이게 되고, 이것이 속신으로 자리 잡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이 속신을 ‘잘못 알고 믿는 것, 혹은 사람을 혹하게 하는 신앙’인 미신이라고 단정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속신은 미신이라고 단정하여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될 인간의 인식론을 담고 있다. 미신이라는 용어는 현재의 과학적 인식론을 전제로 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미신은 특정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종교의 처지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믿음성이 없다고 믿어진 대상에 대해 붙여진 이름이다. 기독교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미신으로 치부되며, 불교도 기독교를 믿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미신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속신을 미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을 특정 문화를 바탕으로 두고 이해해야함을 고려할 때, 정당한 판단이 아닌 것이다.

속신은 그것을 믿음직하다고 보장하는 문화의 테두리 속에서 살펴야 한다.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나라의 속신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비과학적 내지는 비합리성을 앞세워 속신 자체의 존재론적 근거를 의심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이다. 가령 다음의 속신을 살펴본다면 속신과 문화의 관련성을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다.

- 네임 클로버를 찾으면 행운이 온다
- 사진을 찍을 때 한가운데서 찍으면 명이 짧아진다
- 13일의 금요일에는 재앙이 온다

[3]

위의 속신들은 서구 문명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후에 생성된 속신들로 봐야 한다. 인간의 과학적 인식론이 발달하면서 사멸하는 속신이 생길지라도 발달한 문화에 따른 또 다른 속신이 생겨나고, 문화 간의 접목이 활발하면 할수록 다른 문화의 영향에 따른 새로운 속신이 지속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위의 사례들이 보여 준다할 것이다. 따라서 속신에 대한 연구는 문화에 대한 연구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속신을 미신(迷信 Superstition)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속신을 지금 현재 인간의 인식론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판단

이다. 고전소설을 연구하면서 적강(謫降)이나 천정(天定), 환생(還生)의 논리를 20세기의 과학적 인식론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고전소설의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으며, 신화를 신화의 세계에서 고찰했을 때만이 신화적 가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논리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 속신의 의미화 작업 내지는 속신에 대한 의미 분석은 일면 난점을 띠고 있다. 더 나아가 속신의 의미 구명 작업은 그 자체가 매우 회의적인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속신이라는 구술 단문에 대한 의미론적 고찰에는 다분히 현대의 과학적 인식론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대 과학 이전의 사고방식과 인식론의 결과물인 속신을 과학성을 토대로 한 현재의 인식론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무리인 것이다.

더구나 ‘민속folk’의 개념과 ‘신념belief’의 개념이 합쳐진 속신의 세계에서 과학이 설 여지는 매우 협소하다. 현실적으로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지식을 모두 미신으로 내모는 것이나, 민간신앙을 모두 미신이라 단정하는 것은 민속적인 신앙 현상의 결과가 주로 자연과학의 지식으로 정당하게 해석될 수 없는 데서 비롯된 생각이다.

속신의 의미 구명이라는 작업이 지니는 이런 한계를 염두에 둔다면, 속신이라는 민속학적 해석론에 대한 과학적 해명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 속신 속에 담겨진 인간 인식론의 특징을 찾는 작업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속신 연구에 있어서, 속신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작업은 자칫 회의론에 빠지기 쉽다. 속신은 어디까지나 믿음의 체계를 드러내는 발화 표현이기 때문이다.

속신 연구는 마치 지질학자가 지층을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적을 지녀야 한다. 지질학자는 겹겹이 쌓여진 지층의 맨 아래쪽에서 고대 지층의 특징과 그로부터 그 시대의 자연 환경을 유추한다. 여러 겹 적층된 고대 지구의 지질학적 덩어리들은 아직 살아 있는 것이며, 의식적이고도 무의식적인 인간의 “마음”이나 “심리”도 그런 식으로 우리 시대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지층과 마찬가지로 속신은 적층성을 띤 구술 전승물의 성격을 농후하게 지니고 있다. 또한 속신은 문화의 기반이 되는 기층문화의 큰 부분을 점하고 있다. 따라서 속신 연구는 문화라는 거대한 지층의 아래 부분을

연구하여 우리 문화의 특징을 유추하는 작업이다. 본 논의에서는 개별 속신 하나 하나의 의미를 찾는 작업이 아니라, 속신의 생성과정을 기호학적 방법론으로 접근하여 속신 특유의 인식론을 탐구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4].

### III. C. S. 퍼스의 기호이론으로 본 속신

본 장은 한국 속신의 형성과 그 특징을 C. S. 퍼스(Charles Sanders Peirce)의 기호 이론을 통해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퍼스 기호학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기호학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이론가인 소쉬르의 이론에 비해 퍼스의 기호학이 그 범주나 영역이 훨씬 포괄적임을 강조할 수 있다.

기호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기호학은 이제 언어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낸 문화와 심지어는 자연계까지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기호에 대한 연구의 영역이 이렇듯 확대될 수 있었던 데는 미국의 기호 학자 퍼스의 기호학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에 의하여 기호학은 단지 기호 그 자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호가 구성되는 체계 혹은 약호와 함께 그러한 기호와 약호가 활동하는 문화를 다루기 때문에 기호학은 문화학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5]

주지하다시피 소쉬르에게 있어서 기호는 기표와 기의의 자의적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개념이 약속이나 관습에 의해 청각영상과 결합된 것이 기호이다. 따라서 소쉬르식의 기호는 언어 기호를 말하는 것이며, 그에게 있어서 언어 기호는 모든 기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호 체계를 이룬다. 여기서의 기호는 관습이자 약속이다. 즉 약호code인데 따라서 집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문화를 다룰 때 문화는 집단적이자 관습적이라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소쉬르와 퍼스의 기호 이론에서 서로 대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상징symbol’에 관한 양자의 입장이다.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가 유연적(有緣的 motivated)인 것이 소쉬르식의 상징이다. 그는 유연화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기호가 아닌 상징이라고 규정한다. 이것은 소쉬르가 상대적 유연성의 영역을 열어 놓은 것을 의미하며, 그 영역은 다름 아닌 상징이 속한 영역이다. 반면 퍼스는 그의 삼분법에 따른 기호의 세 종류(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 중의 하나인 상

징에 대해, 그것이 관습적이며, 반드시 학습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퍼스식의 상징의 개념은 소쉬르식의 기호 개념과 어느 정도 상응된다고 볼 수 있으며, 퍼스의 기호 삼항 중의 한 가지가 소쉬르의 기호 개념인 것이다. 즉 퍼스의 기호 개념이 소쉬르의 그것보다 더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쉬르는 기호학이 언어학의 상위에 있으며, 그것에 바탕을 둔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는 기호학의 바탕에 텍스트의 언어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약호 내지는 체계가 있다는 가설을 세운다.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전체인 텍스트는 언어학에서처럼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적 차원에서 텍스트에 대한 분석이 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가 비언어적 텍스트인 문화 현상일 때 어떠한 문화 현상은 완결된 텍스트로 간주되어 분석된다. 그런 분석을 통해 기호들간의 약호를 밝혀내는 작업이 약호의 기호학의 주된 목적이다. 이때의 약호는 기호들의 체계화를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규칙인 것이다.

기호를 관습과 약속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는 소쉬르의 기호학과는 달리, 퍼스는 인간에 의해 기호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호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자연현상과 같이 기호 생산자의 전달 의도가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퍼스 기호학에서는 기호의 영역에 든다. 소쉬르식의 기호학에서는 기호가 청각영상과 개념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현실의 맥락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퍼스 기호학의 개방적 성격을 알 수 있다. 또, 퍼스의 기호학에서 다루는 삼항 중, 소쉬르의 기호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대상 object’이다. 퍼스의 기호학은 기호학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본고에서 다루는 속신의 형성을 기호학적으로 고찰하는데도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퍼스가 시종일관 탐구했던 문제는 논리의 철학적 토대 및 사고와 현실의 본질적 특성을 포착하기 위한 새로운 논리의 틀들을 체계화시키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가 목표로 한 학문은 형이상학을 비롯해 인간이 경험 가능한 대상들에 적용될 수 있는 고도의 보편적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기호학을 인간의 사고와 현실의 일반적 형식을 구명하는 철학적 토대에서 출발시켰다.

퍼스 기호 이론의 초점은 기호가 해석소를 통해 기호의 대상과 관련을 맺는다는 식의 기본적인 삼분법에

놓여 있으며 또한 이러한 삼항관계가 우리에게 기호의 생산과 해석 과정이라는 궁극적인 기호 작용의 조건들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대로 퍼스의 기호 개념은 ‘기호, 대상, 해석소’의 3항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해석소란 기호 해석자의 기호 해석에 의해 그의 마음속에 만들어진 기호를 말한다. 중요한 것은 해석소의 개념인데, 이는 본고에서 논의할 속신의 형성을 기호학적으로 고찰하는데에도 중요한 개념이다. 해석소는 이른바 기호 작용 내에서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기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여기서 기반의 의미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인간적 기반, 사회적 기반, 문화적 기반, 역사적 기반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맥락이 포함될 수 있다. 퍼스는 기호 해석에 있어서의 주변 맥락 즉, 콘텍스트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해석소는 기반을 바탕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기호이다. 기호 작용은 이처럼 기호가 해석소를 낳고, 그 해석소가 또 다른 해석소를 낳는 무한한 의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음은 퍼스의 무한 기호작용(unlimited semiosis)을 잘 보여준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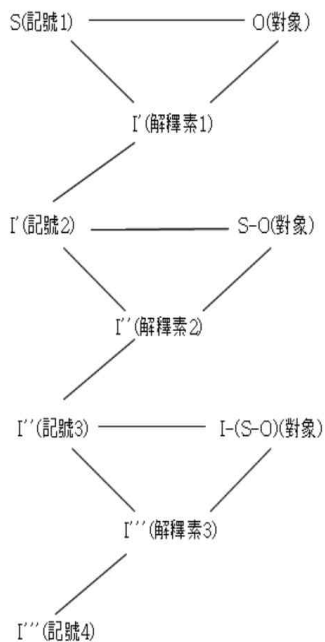


그림 1. 퍼스의 무한 기호작용(unlimited semiosis)  
 Fig 1. Unlimited Semiosis of Charles Sanders Peirce

위 도식에서 기호작용은 기호4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끊임없이 ‘해석소’를 생성해 나가는 무한의 작용을 반복하게 된다.[7]

퍼스의 기호론에 따르면 기호는 발신자가 없는 경우, 즉 해석 가능성만으로도 기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며, 그러므로 병의 징후나 날씨 등도 기호로 취급될 수 있다. 이처럼 퍼스의 기호이론, 특별히 무한 기호 작용은 인간 사고의 방식이자 인식론의 체계를 기호학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알지 못하는 미지를 알아내는 과정을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살고 있다. 다만 그 과정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반복되고 있을 뿐이지만, 사실은 미지의 사실을 알아내고 그것을 지식으로 기호화하고 축적하여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지식은 자연현상이나 물질의 어떠한 상태에 대한 인간의 관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지식의 확대와 축적은 인간의 지식을 발전시켜 복잡한 정신세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정신세계를 기호학적으로 말하여, 첫째 비슷한 것을 가지고 감지하는 것(도상 icon), 둘째, 관계가 있는 것을 가지고 감지하는 것(지표 index), 셋째, 유사성이나 관계도 없는 것을 가지고 감지하는 것(상징 symbol)으로 언급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퍼스의 기호학적 인식론과 속신의 형성 과정을 관련시켜 살피기 위해 속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하나의 또는 몇몇의 기호나 조건이 하나 또는 몇몇의 결과를 드러낸다고 믿는 전통적인 표현’.

이것은 다른 말로 ‘인간의 마음(정신)이 어떤 현상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을 나타낸다고 믿는(해석한) 어떤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단 ‘어떤 현상’이라는 범주가 기호학의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퍼스 기호학이 소쉬르 기호학과 변별되는 특징이며, 속신을 기호학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하는 점이다. 여기서의 해석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일단의 현상이나 상태가 사람의 마음 속에 신념이나 믿음의 형태로 해석되는 것에 한정된다.[8]

왜냐하면 저녁에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아 저 노을이 내 마음 같구나’하고 생각했다면, 이것 역시 퍼스의 기호 이론에 따르면 해석소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이런 식의 해석소는 논외로 한다. 이를 퍼스의 기호 삼항관계에 대입시키면 어떤 현상은 기호sign

에, 나타내는 것은 대상object에, 최종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판단하는 것은 해석소interpretant에 해당된다. 동일한 현상(기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사람마다, 민족마다 상이할 수 있는 이유는 기반ground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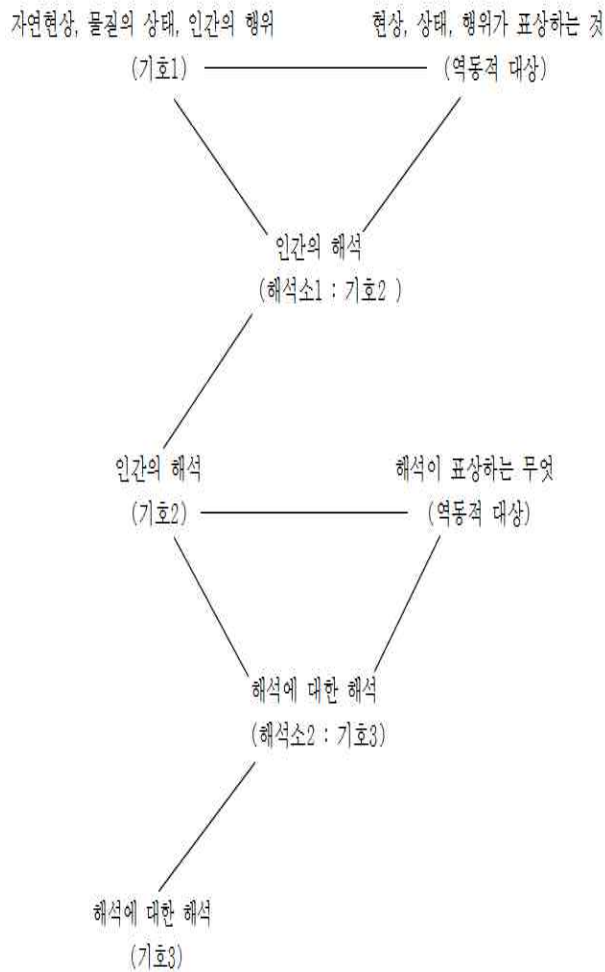


그림 2. 무한 기호작용인 한국 속신의 형성 과정  
Fig 2. Formation Process of Korean Folk-Belief as Unlimited Semiosis

각각의 삼항은 계속 연결되면서 새로운 삼항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는 계속되는 해석소의 산출을 통해 그런 해석소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대상을 생성한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기호 작용은 속신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해 준다. 퍼스의 기호 이론에서 무한히 연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기호 작용은 실제로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나는 찰나적인 것이다. 그러나 퍼스의 기호 이론

에서는 그런 순간적인 것들에 기호와 대상, 해석소라는 삼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석소는 또 다른 기호가 되어 또 다른 해석소를 산출하는 끊임없는 기호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은 속신이 공동체의 공인을 받는 과정, 즉 속신이 속신으로서 형성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속신으로서의 자격을 잃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도식은 애초에 인간에게 속신이 어떤 식으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지를 드러내며, 또한 그렇게 형성된 속신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존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인식론의 방법이자 존재론의 방식이다.

해석소의 해석소가 산출되는 과정은 인간 자신의 마음속에서 속신이 달리 해석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9] 즉 퍼스의 기호 이론에 입각한 위의 도식은 속신이 생성되어 한 사람의 신념 체계에 속하게 되는 아주 짧은 한정된 순간을 드러내는 것이며, 동시에 속신이 공동체에서 소통되는 양상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삼항 하나 하나는 공시적인 면을 드러내며, 계속적인 해석소의 산출 과정은 통시적인 면을 드러내는 것이다.[10] 이런 과정을 통해 속신은 실제로 생성, 첨가, 변형, 삭제의 길을 걷는다.

일반적으로 속신의 조건절은 어떤 현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며, 속신의 조건절을 전제로 한 결과절은 해석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속신의 전제조건은 하나의 기호라 할 수 있고, 이런 기호가 나타내는 대상은 역동적 대상이다.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는 속신에서 조건절은 자연현상을 말하는 것이며, 이런 상황을 전제로한 전체 속신은 하나의 해석소인 것이다.

그러므로 속신은 그 문장 안에 기호와 대상 그리고 해석소를 모두 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하나의 속신은 퍼스의 기호 삼항관계를 실제의 예를 들어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호-대상-해석소의 전체적인 인식 과정이 하나의 속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귀가 크면 잘산다”는 속신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기호가 되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때 속신이 나타내는 것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퍼스 기호학적 용어로 ‘기반 ground’이 다르기 때문이며, 만약 속신이라는 기호에 대

한 해석소가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띠다면 그 속신은 그 공동체에서 부정적이던 긍정적이던 동일한 의미의 기호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물론 속신은 그것이 발생했을 당시부터 속신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떤 현상이나 상태에 대한 해석이 인간의 심리에 믿음이나 신념의 상태로 해석되었을 때, 최초의 해석은 개인적인 차원에 그친 것이겠지만 그런 현상에 대한 해석이 어느 정도 공동체의 신념으로 바뀌면 속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을 기호학적 관점으로 풀 것이 앞서의 논의였다.

#### IV. 고찰 및 결론

속신은 그 발생론적인 측면에서부터 기호학적 인식론의 전개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 현상과 인간 행동에 대한 해석은 하나의 기호가 되고 그런 기호는 또 다른 해석소를 낳은 과정에서 서서히 기호의 기호가 한 집단의 속신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한국 속신의 생성과정에서는 특기할 만한 것은 속신의 성격상 ‘신념’에 해당하는 것과 ‘규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호작용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가령 다음의 속신들은 모두 ‘신념’과 관련된 것들이다.

- 주걱턱인 사람은 잘 산다
  - 손발이 크면 고생을 많이 한다
  - 꿈에 신발을 보면 애인이 생긴다
- [11]

이 경우 자연 현상이나 선천적인 생김새 혹은 우연한 사건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은 그런 해석에 대해 인간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이 방법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속신의 조건절에 해당하는 것들이 선천적이고 우연적인 성격의 것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신의 형성과정에서 해석의 경향은 좋은 징조(吉) 혹은 나쁜 징조(凶)로 고착되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면서 ‘신념’의 측면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다음의 속신들은 그 성격이 다르다.

- 이사 가서 거꾸로 자면 탈이 없다
  - 불장난하면 밤에 오줌싼다
  - 설날에 일하면 죽을 때 헛손질한다
- [11]

이런 속신은 형성과정에서 속신의 조건절에 해당하는 것들이 인간의 행동에 해당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하면 좋다(勸), ~하면 안 된다(禁)’ 식으로 인간의 행동들을 금기하고 권장하도록 규정하는 경향성을 띠면서 ‘규범’의 측면으로 귀결된다. 덧붙이자면 ‘하면 좋다’나 ‘해도 좋다’는 식의 속신보다는 ‘하면 안 된다’와 ‘하면 나쁘다’의 속신이 인간에게는 매우 강력한 구속력과 영향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12] 이상의 논의를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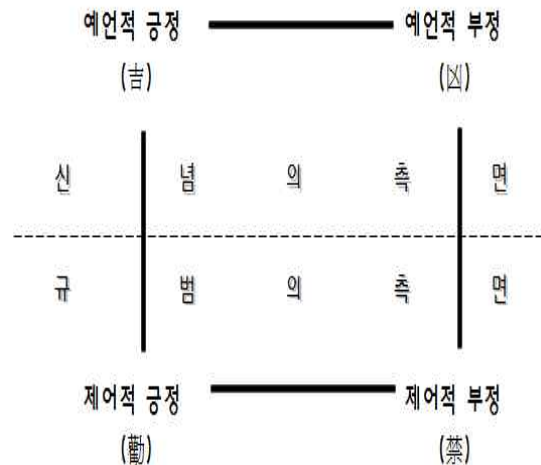


그림 3. 한국 속신의 분포 양상  
 Fig 3. Distribution Aspect of Korean Folk-Belief

#### References

- [1] YG Kim, Korean literary history, Tamgu-dang, 1994. 508.
- [2] KH Lee, The power of words, Jeil-chulpansa, 1987, 68.
- [3] GH Park, An introduction to Korean folklore, Hyungseol-chulpansa, 1994, 250.
- [4] Victor Turner, "From Ritual to Theatre", Performing Arts Journal Publications, 1982, p. 17.
- [5] John Deely, Basics of Semiotics, Indiana Univ. Press, 1990, p. 7.
- [6] Charles S. Hardwick, eds., Semiotic and Significs, Bloomington & London : Indiana University

- Press, 1977, p. 85.
- [7] Robert E. Innis eds., *Semiotics—An Introductory Anthology*, (Bloomington:Indiana University Press, 1985), p. 1~2.
- [8] John K. Sheriff, *The Fate of Meaning ; Charles S. Peirce, Structuralism, and Literature*, (Princeton, New Jersey:Princeton Univ. Press, 1989), p. 60.
- [9] KS Kim, JLKim, *The Significance of Traditional Storytelling in the sense of Performance Theory*,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4(2);123-130, 2018.
- [10] KS Kim, JLKim, *Analysis on the special quantitative variation of dot model by the position transform*,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5(3);67-72, 2017.
- [11] RO Ghoi, *Dictionary of Korean Folk-Belief*, Jipmoon-dang. 1995.
- [12] KS Kim, JLKim, *The Significance of Korean Proverb and Riddle in the sense of Bias*.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3(4) ;35-42, 2017.